

韓國의 綜合大學圖書館 藏書開發政策에 관한 研究**

孫 正 彪*

〈目 次〉

I 序 論

1. 研究目的
2. 研究方法 및 限界

II. 理論的 背景

1. 藏書開發政策의 定義
2. 藏書開發政策의 必要性
3. 藏書開發政策의 內容

III. 分析 및 考察

1. 藏書開發政策의 成文化 現況
2. 資料選擇의 責任과 機構
3. 資料選擇의 範圍과 優先順位
4. 特殊集書
5. 複 本
6. 資料購入費 配定

IV. 結 論

I. 序 論

1. 研究目的

오늘날 大學教育의 目的과 機能은 高度의 知的 文化의 繼承·傳達과 創造·發展 및 國家社會의 指導者 養成이라는 傳統的인 目的 以外에 現實社會의 改造를 위한 當面問題解決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研究와 그 研究를 통한 現實參與라는 또 하나의 目的展開의 方向으로 나가고 있다.⁽¹⁾ 이처럼 大學教育構造가 時代的인 方向轉換 現象을 자아함에 따라 大學圖書館도 역시 그 理念具現과 目的遂行을 위하여 1950年 以後부터는 10年에 倍增現象을 보여주고 있는 情報出版量⁽²⁾을 如何한 方法으로 신속히 分析하고 綜合하여 圖

* 慶北大 圖書館學科 副教授

** 이 論文은 延世大大學院 圖書館學科 博士課程「圖書館藏書開發論」term project로 제출한 것임.

(1) 中央教育研究所, 大學教育內容에 관한 綜合的 研究—大學教授資質向上에 관한 研究(서울: 同所, 1967), pp.13~16.

(2) K.L. Neagley and N.D. Evans, *Handbook for Effective Curriculum*(Englewoods Cliffs: Prentice-Hall, 1967), p.354.

2 도서관학논점

書館資料를 통한 敎授와 學習, 研究·調查間에 相互有機的인 關係를 맺어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奉仕構造 再體制化의 重大한 局面에 直面하기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高度化 되어가는 知識領域과 知識總量의 擴大, 要求度의 多樣化 및 人的 能力과 豫算의 制限性이라는 現實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合理的이고 經濟的인 藏書構成을 이룩할 것인가 하는 根本的인 問題가 오늘날 大部分의 大學圖書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問題中의 하나라 할 것이다. 특히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資料購入 豫算의 削減으로 인한 購賣力의 低下는 先進國 大學圖書館들의 藏書開發에 가장 큰 問題로 登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各圖書館들은 주어진 豫算으로 最善의 藏書를 구축하고자 資料蒐集節次의 公式化, 藏書開發政策의 成文化, 豫算配定의 公式化, 長期計劃의 明確化, 協同프로그램開發, 藏書評價 및 調整에 대한 計量的 方法 模索 등 多角的인 方法을 모색하고 있다.⁽³⁾

그러나 우리나라 大學圖書館들의 現況을 보면 하나의 統合된 敎育의 場으로서 圖書館資料를 통한 敎授·學習 및 調查·研究間에 相互有機的인 關係를 맺어나가기에는 藏書構成面에 있어 非合理的, 非經濟的인 要素가 많다 하겠다. 이의 原因으로는 이미 여러 사람에 의하여 지적된 바와 같이 大學設置基準令에 對備하기 위한 量的 增加策의 一環으로 利用價値에 대한 고려보다는 오직 藏書數만을 높이는 데에 급급했던 現象도 있겠지만,⁽⁴⁾ 무엇보다도 藏書構成의 影響要因分析을 통한 科學的이고 組織的인 藏書開發政策을 樹立하여 經濟的이고 效率的인 藏書構成을 이루지 못한 點도 역시 큰 原因中의 하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研究는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이 直面하고 있는 그와 같은 現實的인 問題들을 다소나마 해결 짓기 위하여 綜合大學圖書館을 對象으로 藏書開發政策의 實態를 調查·分析하여 問題點을 摘出하고 그 改善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3) R.M. Magrill and M. East, "Collection Development in Large University Libraries," in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8 (New York:Academic Press, 1978), p.2.

(4) 李春熙, "大學圖書館寫," 전국도서관실태조사, 상(서울:한국도서관협회, 1971), p.149.

2. 研究方法 및 限界

이 研究의 方法은 다음과 같다.

- ① 藏書開發政策의 理論의 背景은 國內外 各種 文獻을 蒐集하여 檢討하였으며, 그 內容은 藏書開發政策의 意義와 必要性 및 內容 등을 中心으로 살펴보고있다.
- ② 各 大學에서 採擇하고 있는 藏書開發政策의 實態에 대한 資料蒐集은 選擇型과 自由記述型을 混合한 36個 問項으로 된 質問紙를 配布하여 蒐集 하였으며, 成文化된 資料選定基準이나 關係規定등이 있을 경우는 이들도 함께 蒐集하여 分析하였다.
- ③ 이 研究의 調査對象은 1984年 11月 末 現在 總 42個 綜合大學⁽⁵⁾中 質問紙가 回收된 40個 大學을 對象으로 하였다.

이 研究의 限界는 다음과 같다.

- ① 實態調査 對象의 範圍는 綜合大學만으로 局限하였다. 그것은 綜合大學과 單科大學은 奉仕對象者數와 性格, 圖書館組織의 規模, 藏書構成 範圍, 資料에 대한 要求度의 多樣性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實態를 統合 分析하여 相互比較한다든지 一元化된 改善方向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關係로 綜合大學만을 對象으로 하였다.
- ② 이 研究는 藏書開發政策中 資料選定에 관련된 政策만으로 局限하여 環境的 水準을 파악하는 程度로 그쳤으며, 廢棄 및 藏書評價 등에 관한 事項은 大部分의 圖書館들이 法的基準 到達에 급급하고 있어 거의 實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除外하였다.

II. 理論的 背景

1. 藏書開發政策의 定義

藏書開發(collection development)이란 이미 前述한 바와같이 1970年代

(5) 한국大學年鑑, 1984年度(서울:에드영, 1984), p.241.

4 도서관학논집

에 들어서면서 資料購入豫算의 削減과 더불어 생겨난 用語로, 1960年代 以前的 圖書選定 過程이라는 단순한 概念인 ‘圖書選擇(book selection)’이나 1960年代의 ‘藏書構成(collection building)’이 지니고 있었던 概念, 즉 一定한 設計에 따라 組立하여 나가는 機能的인 建造物처럼 組織的인 集書計劃과 選擇方針에 따른 資料選擇과 蒐集 및 藏書確保라는 傳統的인 觀念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추상적인 質的 基準보다 오히려 地域社會 全體의 要求 및 圖書館 全體의 奉仕活動과 연결지워 藏書와 利用과의 觀點에서 藏書의 概念을 理解하고, 단순히 個個 圖書館의 開發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地域 및 國家水準에서 이루어지는 相互協力 프로그램과의 相互有機的인 밀접한 關係속에서 이루어지는 力動的 開發이라고 하는 概念으로 變遷되면서 생겨난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藏書開發政策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는 먼저 上記한 概念變遷을 거쳐 形成된 ‘藏書開發’에 대한 몇 사람의 定義를 살펴 보고, 그로부터 概念을 定立하여 보기로 하겠다.

에반스(G. E. Evans)는 藏書開發이란 “利用者の 要求와 地域社會의 資源에 비추어 圖書館 藏書의 強點과 弱點을 파악하여 現存하고 있는 弱點의 修正을 試圖하는 過程으로, 이는 圖書館 資源에 대한 지속적인 調査와 評價 및 利用者の 要求와 奉仕를 받고 있는 地域社會의 變化에 대한 지속적인 研究를 要求한다”(6)하고,

보먼(J. C. Baughman)은 藏書開發이란 藏書計劃과 實行 및 評價라는 세 가지의 基本概念을 混合한 것(7)이라 定義하고 있고 있다.

한편 美國圖書館協會 用語集을 보면 藏書開發이란 “選擇政策의 決定 및 調整, 現在 및 潛在的 利用者들의 要求評價, 藏書利用研究, 藏書評價, 藏書要求度 把握, 資料選定, 資料共同利用計劃, 藏書維持 및 廢棄등을 포함한

(6) G. Edward Evans, *Developing Library Collections*(Littleton, Col.: Libraries Unlimited, 1979), p.28.

(7) James C. Baughman, "Toward a Structural Approach to Collection Development,"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38, no.3 (May 1977), pp.241~248.

藏書開發과 관련된 諸活動을 포괄하는 用語⁽⁸⁾라 定義하고 있으며,

한편에 해로드 (L.M. Harrod)의 用語集에는 藏書開發이란 “단순히 現在 當面하고 있는 要求를 위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奉仕의 目的에 부합될 수 있도록 數年 以上 一貫性 있고 신뢰할 수 있는 藏書構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收書프로그램을 計劃하는 過程”⁽⁹⁾이라 하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藏書開發에 대한 定義는 學者에 따라 그 見解가 조금씩 달리 表現되고 있으나, 이들의 見解를 綜合하여 한마디로 表現하여 보면 藏書開發이란 地域社會 全體의 要求에 비추어 보았을 때 圖書館藏書가 나타내고 있는 長點과 弱點을 파악하여 現存하고 있는 弱點을 修正하여 나가는 피드백의 過程을 意味하는 것으로, “地域社會의 分析, 選擇政策, 選擇, 收書, 廢棄, 量的 및 質的 評價 등의 여섯가지 要素의 끊임없는 循環過程”⁽¹⁰⁾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諸活動을 意味한다 하겠으며, 藏書開發政策이란 바로 그와 같은 藏書開發과 관련된 諸活動에 대한 확립된 意圖를 표시하는 行動指針, 즉 “現存 藏書에 대한 記述이 아니라 藏書가 나아가야 할 方向을 나타내는 聲明書”⁽¹¹⁾를 意味하는 것으로, “選擇政策과 收書政策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概念을 지니고 있다”⁽¹²⁾ 하겠다.

2. 藏書開發政策의 必要性

藏書開發政策은 藏書構成의 未來指向의 方向을 제시하여 주는 道具로서 오랫동안 그 必要性이 認識되어 왔고 또한 強調되어 왔다. 즉 1950年代에는 檢閱에 대한 방어와 知的 自由를 수호하기 위한 道具로서, 1960年代 末과 1870年代 初에는 司書에게 부여된 社會的 責任을 감당하기 위한 道具로서, 1970年代 後半에는 圖書館豫算이 削減됨에 따라 豫算을 보다 적절하게 執行

(8) *H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LA, 1983), p.49.

(9) *Harrod's Librarians' Glossary*...5th ed. (Aldershot: Gower Publishing, 1984), p.175.

(10) Evans, *op. cit.*, p.20.

(11) K. Linda Ward, "Collection Policy in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in *Background Readings in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edited by Phyllis van Orden and Edith B. Phillips (Metuchen: Scarecrow Press, 1979), p.95.

(12) Richard K. Gardner, *Library Collections: Their Origin, Selection an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1981), p.221.

하고 더불어 豫算當局이나 公衆에게 合理的인 豫算計劃 樹立임을 확신시키기 위한 道具로서 活用되어 왔다. (13)

이러한 變化속에서 強調되어 온 成文化된 藏書開發政策의 必要性에 관하여 諸學者들의 見解를 들어 좀 더 具體的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레고리(R. Gregory)와 스토펠(L. Stoffel)은 藏書開發政策의 必要性에 대하여,

- ① 圖書選擇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情報과 解釋을 위한 道具로 利用되며,
- ② 知的 自由의 수호, 즉 論爭的인 資料의 收書에 대한 積極的인 接近을 提供하여 주는 道具가 되며,
- ③ 館內奉仕 訓練을 위한 道具가 된다.

하고 있고, (14)

에 반스는 이에 대하여,

- ① 開發되어야 될 藏書分野에 대한 統一된 意見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며,
- ② 藏書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서로 다른 個個人들간의 意見調整에 도움이 되며,
- ③ 藏書의 一貫性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 ④ 藏書에 관하여 취해져야 할 例外的인 決定들의 數를 줄여 주고,
- ⑤ 藏書란 어떠한가에 관하여 選定者와 利用者間的 混亂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고 있다. (15)

한편, 美國圖書館協會는

- ① 選定者가 명시된 目標에 따라 一貫性 있게 業務를 수행할 수 있도록

(13) *Ibid.*, pp.221~222.

(14) Ruth Gregory and Lester Stoffel, "Collection Building and Maintenance," in *Background Readings in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p.88.

(15) Evans, op. cit., pp.123~124.

하여 보다 충실한 藏書構成과 보다 현명한 기금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 ② 圖書館 職員과 利用者, 行政當局者, 理事 및 其他 사람들에게 既存藏書의 範圍와 特性 및 계속적인 資源開發計劃에 관하여 알려 주고,
- ③ 豫算配定 過程에 도움이 되는 情報를 제공하여 주는 바람직한 道具라 하고 있고, ⁽¹⁶⁾

가드너(R. K. Gardner)는 上記한 諸見解보다 具體的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그 內容을 살펴보면,

- ① 圖書館 職員과 監督機關으로 하여금 圖書館의 目標를 항상 생각하도록 하게 한다.
- ② 圖書館이란 現在의 利用者만을 奉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地域社會 全體에 奉仕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
- ③ 資料의 選擇과 廢棄에 대한 質的基準 樹立에 도움을 준다.
- ④ 利用者와 行政當局者, 監督機關 및 同一 分野의 他圖書館에게 自館이 所藏하고 있는 藏書의 範圍와 特性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 ⑤ 資料選擇時 選定者의 個人的 偏見을 最小化 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⑥ 新入職員의 館內奉仕 訓練道具로 사용된다.
- ⑦ 職員이나 監督層이 바뀔 때 一貫性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⑧ 職員으로 하여금 自體의 業務遂行을 定期的으로 評價할 수 있도록 하는 手段이 된다.
- ⑨ 圖書館이 企業體처럼 經營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公衆에게 弘報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⑩ 豫算配定過程에 도움이 되는 情報를 제공하여 준다.
- ⑪ 많은 日常的인 業務決定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時間的 浪費를 막을 수 있어 內的業務의 效率性을 높이는데 기여해 준다.

(16)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Guidelines for Collection Development* (Chicago: ALA, 1979), p.2.

⑫ 特定資料의 購入이나 拒絶에 관하여 個人이나 集團의 反對에 直面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道具가 된다. 하고 있다.⁽¹⁷⁾

이처럼 成文化된 藏書開發政策이란 藏書開發의 範圍와 水準의 決定, 豫算의 適正配定, 一貫性 있는 業務推進, 個人的 偏見의 排除에 의한 組織的인 藏書構成 뿐만 아니라 行政當局이나 奉仕對象者에게 合理的인 豫算計劃樹立을 確신시키기 위한 弘報資料로서, 또한 藏書構成의 相互協力을 위하여 중요한 意味를 지닌다 하겠다.

3. 藏書開發政策의 內容

藏書開發政策은 前述한 바와 같이 圖書館의 資料選擇을 위한 指針이며, 體系的, 組織的인 藏書構成을 위한 道具라 하겠다. 따라서 藏書開發을 責任지고 있는 職員들은 文庫의 範圍를 決定하고 形式 및 內容에 관한 豫備表를 準備하는 등 開發하고자 하는 藏書의 方向과 範圍, 즉 “어떤 形態의 資料를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主題分野에 치중할 것인가, 어떤 主題를 단지 一般的으로만 取扱할 것인가, 어떤 연령층의 讀者를 위하여 資料를 提供할 것인가, 選擇을 고려하고 있는 資料의 水準은 어떤가, 어떤 言語로 쓰여진 것을 圖書館이 蒐集할 것인가”⁽¹⁸⁾ 등에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히 밝혀두지 않으면 안된다 하겠다.

그러면 大學圖書館에 適合한 藏書開發政策의 內容은 어떻게 構成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美國圖書館協會 藏書開發委員會가 1977년에 내놓은 指針을 보면 藏書開發政策에서 다루어져야 할 要素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⁹⁾

가. 圖書館의 一般的 目標分析

(17) Gardner, *op. cit.*, pp.222~224.

(18) 李炳穆編, 資料選擇構成論(서울: 延世大學校圖書館學科, 1982), p. 72.

(19) “Guidelines for the Formulation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in *CLIP Notes: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Chicago: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LA, 1981), pp. 5~7.

이 部分에 包含되어야 할 事項으로는,

- ① 奉仕를 받을 顧客,
- ② 藏書의 全般的인 主題限界,
- ③ 支援을 받게 되는 프로그램 種類나 利用者 要求(研究·教授·娛樂的인 것 및 一般情報, 參考 등),
- ④ 選擇에서 다룰 一般的인 優先順位와 制限範圍—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事項을 包含한다.
 - ㉠ 集中的인 集書를 위한 계속적인 支援程度,
 - ㉡ 蒐集 혹은 除外될 資料形態,
 - ㉢ 蒐集 혹은 除外될 言語 및 地理的인 分野,
 - ㉣ 蒐集 혹은 除外될 年代의 區間(chronological periods),
 - ㉤ 其他 除外事項,
 - ㉥ 複本,
- ⑤ 藏書에 관한 地域的, 國家的, 地方的 相互協定,
- ⑥ 圖書館의 法的, 規定的, 혹은 政策的 要求事項들,

나. 主題分野 藏書開發政策의 細部的인 分析

이 分析은 分類表에 따라 組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各 主題範圍에는 다음과 같은 事項들을 나타내도록 한다.

- ① 強度 높은 蒐集을 나타낸 規則의 水準
 - ㉠ 藏書의 現存 強度,
 - ㉡ 藏書活動의 實際的인 最近 水準,
 - ㉢ 프로그램 要求의 直面을 위한 바람직한 蒐集水準,
- ② 言語
- ③ 蒐集될 年代의 區間,
- ④ 蒐集될 地理的인 分野,
- ⑤ 蒐集될 資料의 形態,
- ⑥ 分野別 選擇에 根本的으로 責任을 질 圖書館 單位部署나 選擇者,

다. 形態別 集書를 위한 藏書開發政策의 細部的인 分析

- ① 新聞,
- ② 마이크로形態 資料,
- ③ 毒寫本,
- ④ 政府刊行物,
- ⑤ 地圖,
- ⑥ 視聽覺資料,
- ⑦ 데이터 베이스,

라. 索 引

등이 包含되어야 한다 하고 있다. 그러나 個個 圖書館들이 藏書開發政策을 立案할 때에는 上記한 諸要素中 自館의 特性에 맞는 要素들을 신중히 選定하여 內容構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以上에서 살펴 본 諸構成要素中 藏書開發政策의 內容構成에 基幹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몇가지 要素들에 대하여 좀 더 具體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資料選擇의 責任과 機構

藏書計劃과 資料選擇에 대한 根源的인 責任을 教授와 圖書館 職員中 어느 쪽에 부여할 것인가, 資料選擇機構는 單位部署와 委員會 組織中 어느 方法을 擇할 것인가, 委員會를 構成한다면 教授와 圖書館職員 中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등의 問題는 大學圖書館에서 오랜동안 민감한 反應을 보여 주고 있는 問題라 하겠다.⁽²⁰⁾

美國의 경우를 보면 한 調查結果 1930年代까지는 圖書選擇의 거의 모두가 教授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²¹⁾ 이러한 現象은 1957년에 54個 大學을 對象으로 調查한 結果에서도 ‘教授의 助言으로 圖書館이 選擇

(20) James Baughman, and Others, "A Survey of Attitudes toward Collection Development in College Libraries," in *Collection Development in Libraries: A Treatise*, pt. A, edited by Robert D. Stueart and G.B. Miller, Jr. (Greenwich, Conn.: JAI Press, 1980), p.107.

(21) J. Periam Danton, *Book Selection and Collections: A Comparison of German and American University Libraries* (New York: Columbia Univ., 1963), pp.62~63.

의 責任을 진다'고 한 6個館을 除外하고는 거의 모두가 教授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²²⁾ 그러나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이의 問題點의 指摘과 더불어 司書가 選擇에 대한 責任을 져야 한다는 主張이 高潮되어 감으로써 점차 圖書館에 속한 活動으로 認識되어 現存에 이르고 있다.⁽²³⁾ 이에 비하여 日本의 경우는 現在까지도 60~70%⁽²⁴⁾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80~90%⁽²⁵⁾가 教授에 의한 選擇·蒐集 시스템을 採擇하고 있어 相異한 樣相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資料選擇의 一次的인 責任을 教授에게 두는 것이 가장 理想的이라 하겠으나, 事實上 教授들은 講義準備, 學生面談, 校內 各種 委員會와 地域 社會 各種活動參加, 研究 및 專門文獻讀書 등으로 인하여 體系的, 繼續的인 藏書構成 業務를 遂行할 충분한 時間이 없을 뿐 아니라,⁽²⁶⁾ 豫算의 機械的인 均等分割을 초래시켜……重點的인 資料整備나 藏書의 不均衡을 是正하기 위한 豫算의 柔軟한 運用을 不可能하게 함으로써 藏書構成의 硬直化를 助長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各專攻이나 學科의 研究圖書費 不足을 여기에서 보충할려는 方向으로 選擇⁽²⁷⁾한다든지, “自身的 關心分野나 學問領域의 資料蒐集이 우선이 되어…關心을 갖지 않는 部分의 경우는 蒐集網에서 누락되는 結果도 생겨난다”⁽²⁸⁾ 하겠으며, 이 밖에 新刊資料에 대한 情報는 教授보다 藏書構成 擔當司書가 먼저 各種 選擇道具들을 통하여 接한다⁽²⁹⁾는 點들을 고려하여 볼 때 바하(H. Back)의 주장처럼 主題分野別 研究用 集書를 除外하고는 資料選擇의 根本的인 責任은 司書에게 두되,⁽³⁰⁾ 라일이 주장

(22) Harry Bach, "Acquisition Policy in the American Academic Librar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18, no.6 (Nov. 1957), pp.446~447.

(23) David O. Lane, "The Selection of Academic Library Materials, A Literature Surve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29, no.5 (Sept. 1968), pp.364~372.

(24)金子重重 編, 情報의 収集과 選擇(東京:雄山閣, 1984), p.68.

(25)李勝遠, "大學圖書館의 圖書選擇節次에 관한 研究," 未刊本碩士學位論文(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圖書館學科, 1984), p.24.

(26)Wallace John Bonk and Rose Mary Magrill,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5th ed.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79), pp.32~33.

(27)金子重重, *op. cit.*, p.70.

(28)藤田善一, "大學圖書館의 集書方針," 現代의 圖書館, vol.16, no.2 (1978. 6), pp.67~68.

(29)Bonk and Magrill, *op. cit.*, p.34.

(30)Bach, *op. cit.*, p.450.

한 바와같이 “藏書構成의 진진한 프로그램開發을 위하여 行政當局者와 教授 및 圖書館職員間의 밀접한 協力”⁽³¹⁾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더불어 資料部門別 選擇의 주된 責任은 諸學者들의 見解⁽³²⁾를 綜合하여 볼 때 各 專門分野別 研究用 및 標準資料, 指定圖書의 경우는 教授가, 其他 主題分野 學習用 資料와 지나치게 專門化 되지 않고 敎科課程의 直接的인 要求와 關係되지 않은 一般專門圖書, 娛樂의인 讀書資料는 教授와 學生의 要請에 따라 藏書構成擔當司書가, 參考集書는 參考司書가, 遂次刊行物은 遂次刊行物 司書가, 特殊集書는 特定 主題分野의 경우는 教授가, 稀貴資料·筆寫本·其他資料는 教授의 諮問을 얻어 擔當司書가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리고 資料選擇機構의 組織은 “教授代表로 構成된 委員會 組織이 普遍的인 方法”⁽³³⁾이라 하겠으나, 上記한 바와 같은 理由를 감안하여 볼 때 “主題別 書誌專門司書(subject bibliographer)나 主題專門司書(subject specialist)를 採用”⁽³⁴⁾하여 既存 圖書管理體制와는 달리 館長의 諮問機關이나 直屬 企劃機關으로 藏書開發部署를 獨立시키거나, 혹은 現實的인 方案으로 圖書館各部署로부터 選拔된 職員으로 構成한 藏書開發委員會를 두고,⁽³⁵⁾ 教授 및 學生과 密接한 協力構造體制를 강구함과 더불어 學科別 專門資料 選擇의 경우는 “學科長 혹은 特定教授(學科別 圖書選擇委員과 같은 경우)에 의한 收書過程 支配의 可能性을 排除하기”⁽³⁶⁾위하여 全教授 參與制 方法을 採擇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思料된다. 이 때의 “委員會나 專門部署의 역할은 政策 혹은 節次가 不足한 分野 把握, 政策 및 節次聲明書 抄案, 藏書實態調查 實施,

(31) Guy R. Lyle,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Library*, 4th ed. (New York: Wilson, 1974), p.175.

(32) *Ibid.*, pp.181~182;
CLIP Notes, pp.50~64; 88~100;
藤田善一, *op. cit.*, pp.68~72.

(33) William A Katz, *Collection Development; the Selection of Materials for Libraries* (New York: Holt, 1980), p.112.

(34) Robert Haro, “Book Selection in Academic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28, no.2 (March 1967), p.104.

(35) Bonk and Magrill, *op. cit.*, pp.31~32.

(36) Guy Lyle, *The President, The Professor, and the College Library* (New York: Wilson, 1963), p.37.

豫算配分公式 樹立, 學科와 더불어 選擇調整, 特定額數 以上の 費用要請 承認,⁽³⁷⁾이 밖에 選擇用 들(tool)의 整備 및 選擇用 리스트作成, 利用者 要求度 調査, 複本數 決定, 其他 資料選擇會議 開催 및 運營에 관한 事項, 등⁽³⁸⁾ 直接的 및 間接的 業務 全部를 遂行한다 하겠으며, 委員會 形態로 되어 있을 경우 會議開催頻度는 대체로 “每週에 한번, 1個月에 한번, 혹은 小規模 圖書館은 3個月에 한번 單位로 開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頻度數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³⁹⁾이 보다 效率的인 運營方法이라 하겠다.

(2) 資料選擇의 範圍와 優先順位

資料選擇의 範圍와 優先順位는 이미 前述한 바처럼 各 大學의 目的과 奉仕對象者의 構成成分, 教科課程의 範圍, 研究活動範圍, 豫算規模, 集書目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章에서는 大學圖書館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最小限의 資料範圍와 選擇 優先順位에 대한 一般的인 見解를 中心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美國圖書館協會 藏書開發委員會는 藏書密度(collection density) 및 蒐集強度(collecting intensity)의 水準을 다음과 같이 5段階로 나누어 놓고 있다.⁽⁴⁰⁾

- ① 網羅의 水準(comprehensive level) — 가능한 限 特定分野를 위한 모든 記錄화된 重要資料, 즉 特殊集書를 包含할려고 노력하는 集書段階,
- ② 研究水準(research level) — 學位論文과 獨自的인 研究를 위하여 要請되는 主要 原典, 즉 研究報告書, 新材料, 科學實驗結果, 網羅的인 重要 參考資料, 광범위한 專門圖書選擇, 學術誌의 광범위한 集書, 專門索引 및 抄錄誌 등을 포함하는 集書段階,
- ③ 學習支援 水準(study level)
 - ① 上級 學習支援 水準(advanced study level) — 學部 및 碩士學位 上

(37) Bonk and Magrill, *op. cit.*, p.32.

(38) 河井弘志, 等編, 藏書構成と圖書選擇(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83), pp.249~252.

(39) Katz, *op. cit.*, p.112.

(40) CLIP Notes, pp.3~4.

級過程, 지속적인 自習支援을 위한 集書段階로, 新刊 및 舊刊의 광범위한 基本圖書, 重要作家 作品의 完全한 蒐集, 代表的인 學術誌, 專門參考資料, 基本的인 專門書誌를 포함함.

㉠ 入門學習支援水準(initial study level) — 學部課程 支援을 위한 集書段階로, 一定基準리스트에 의한 標準的인 舊刊圖書와 신중히 選擇한 新刊 基本圖書, 重要作家 作品의 廣範圍한 選擇, 主要 書評誌, 代表的인 專門參考資料와 專門書誌의 最新版을 포함함.

㉡ 基本的水準(basic level) — 主要 辭典 및 百科事典, 主要作品의 選定版, 歷史的 調査, 主要書誌, 小數의 主要 專門學術誌를 포함하는 選定集書段階,

㉢ 最低水準(minimal level) — 아주 基本的인 資料 以外에는 거의 選擇이 이루어지지 않는 主題分野

로, 대체로 現在 美國의 大學들이 採擇하고 있는 資料選擇의 最小範圍를 보면 最低水準에서 學習支援水準까지로 하고 있다.⁽⁴¹⁾

한편 高橋重臣은 集書의 範圍를 6段階로 나누어 놓고 있는 바,⁽⁴²⁾

① 教養課程의 教科學習에 필요한 것으로, 辭典·百科事典·핸드 북·一般書誌 등의 基本參考圖書, 入門書·概說書 등을 포함한 指定圖書(標準學習用 圖書)

② 教養課程의 目的에 알맞는 一般教養圖書로, 一定基準 리스트에 나와 있는 標準的인 一般教養圖書(學生希望과 要求도 參考로 한다)

③ 專門課程의 教科學習에 필요한 것으로, 指定圖書, 主要 專門學術誌, 리포트作用 參考書(標準的인 學習·研究用 圖書)

④ 大學院課程의 教科學習 및 研究, 教授의 教育 및 研究에 필요한 것으로 專門書誌·索引·抄錄 등의 專門參考圖書, 專門學術誌, 重要 研究論

(41) University of Wisconsin, Green Ba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 Guidelines," in *CLIP Notes*, p.15; Hampden-Sydney College, "Library Collection Policy Statement (Draft)," in *CLIP Notes*, p.115.

(42) 高橋重臣, "大學圖書館藏書論," *藝亭*, 5號 (1965), pp.4~11(藤田善一, *op. cit.*, p.68. 에서 재인용)

文, 報告書, 學術團體刊行物, 우수한 重要 專門研究圖書 약간,

- ⑤ 綜合研究나 共同研究를 위하여 主題分野間的 斷層을 接合補充하기 위한 關連資料로, 個個 學科에는 直接的인 關係가 없는 分野나 主題에 관한 것, 적어도 基本參考圖書 以上の 情報를 얻을 수 있는 程度의 專門書誌 專門索引 등의 專門參考圖書群, 그 大學의 必要에 부응하기 위한 資料,
- ⑥ 重點的으로 알아야 될 分野·主題의 경우는 文獻的 價値나 價格의 高低를 不問하고 網羅的으로 蒐集, 등으로 나누고, 이 중 4段階까지를 集書의 最小範圍라 하고 있다.

以上の 두 見解를 살펴 보면 大學圖書館이 갖추어야 할 資料의 最小範圍는 대체로 大學院課程의 教授—學習과 自律學習 支援를 위한 集書까지를 意味한다 하겠다. 이러한 集書의 範圍를 上記한 두 見解를 綜合하여 選擇의 優先順位에 따라 要約하여 보면,

- ① 辭典·百科事典등의 基本參習圖書, 主要書誌,
- ② 學生을 위한 學習用 圖書, 一般教養圖書로, 教授가 自身의 授業과 관련하여 읽힐만한 圖書를 學生들에게 指定·指示 혹은 紹介하여 學習效果 增進과 自律學習 態度 培養을 目的으로 한 學部學生用 基本圖書와 指定圖書, 學生들의 一般的인 教養을 높이기 위한 圖書, 主題分野를 包括的으로 다룬 小數의 主要 專門學術誌,
- ③ 各 分野의 學士學位課程을 지원할 수 있는 各 專門分野의 基本的·標準的 資料로, “各 教科에서 取扱하고 있는 學問分野의 歷史와 現狀을 나타낸”(43) 學部學生의 學習·研究用圖書, 主要 書評誌, 代表的인 專門參考資料와 專門書誌의 最新版碩,
- ④ 碩士學位課程을 적어도 最小限 支援할 수 있는 各 學問領域別 상당수준의 專門圖書와 代表的인 專門學術誌, 몇 個의 專門分野에서 共通으로 利用될 수 있는 政府刊行物, 統計書類, 各 學問領域別 專門參考資料, 國內出版의 新刊書中 專門書와 一般教養書의 網羅的 蒐集,

(43) *Ibid.*, p.71.

등이 大學院 碩士課程이 있는 大學들의 資料選擇의 最小範圍와 優先順位라 하겠으며, 다음 두 段階는 豫算이 許容될 경우 蒐集되는 段階로,

⑤ 博士學位論文과 獨自의 研究에 要請되는 原典(研究報告書·實驗結果 등), 網羅의인 重要 參考資料, 극히 專門的인 圖書(研究用 圖書) 및 專門學術誌의 광범한 수집, 수집될도가 희박할 가능성이 있는 研究分野의 中間領域, 學際領域資料, 稀貴資料 등,

⑥ 그 大學의 必要에 따라 網羅의 蒐集을 하는 特定分野의 資料, 등의 順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資料種類別 選擇의 優先順位와 制限範圍에 대한 一般的인 見解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新刊資料와 舊刊資料의 경우는 新刊本 蒐集에 더 置重하여야 하며, (44) 舊刊本(絶版本 包含)은 大學敎科課程과 現存藏書의 評價에 基低를 두되 單一 主題보다 두가지 以上の 主題分野에 奉仕할 수 있는 資料選擇에 優先權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45)

② 多國語로 된 資料의 경우는 語文學分野를 除外하고는 정당한 事由가 있을 경우에 選擇하고, 대체로 國內書 選擇에 優先權을 두어야 하며, (46) 外國書라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가장 普遍的으로 알려진 外國語의 資料를 選擇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7)

③ 敎科書는 補充資料로 절대 필요시되거나 심히 利用이 될 경우, 혹은 그 大學에서 開設된 科目의 敎科書는 모두 購入하기로 한 圖書館政策이 아닌 以上 蒐集對象에서 除外하여야 한다. (48)

④ 敎授著作物은 大學의 敎科課程에 적합한 資料 以外에는 蒐集하지 않는

(44) M.A. 켈펀드, 大學圖書館, 李炳穆譯(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p.86:

CLIP Notes, p.89; p.102; p.111;

Magrill and East, *op. cit.*, p.21.

(45) CLIP Notes, pp.89~90.

(46) *Ibid.*, p.71; p.96; p.111;

Magrill and East, *loc. cit.*

(47) 켈펀드, *op. cit.*, p.85.

(48) Lyle, *op. cit.*, p.183;

CLIP Notes, p.13; p.52; p.97; p.101.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⁴⁹⁾

- ⑤ 娛樂的 讀書資料는 豫算의 許用範圍內에서 基本的인 水準(小規模) 정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⁵⁰⁾
- ⑥ 稀貴本과 筆寫本은 地域이나 國家에서 關心이 있는 것은 蒐集하되 豫算面에서 5段階 以上の 蒐集目標을 樹立한 大學의 경우에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選擇時는 關聯學科 教授의 諮問을 얻어 신중히 選擇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⑦ 逐次刊行物은 單行本과 同一한 評價基準에 의하여 選擇한다.⁽⁵¹⁾
- ⑧ 非印刷資料(non-print material)는 教科課程의 直接的인 支援을 위한 資料로 限定하며, 外國의 學位論文 및 定期刊行物의 지난 號 蒐集은 마이크로 形態資料로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⁵²⁾

(3) 複 本

複本量은 利用者의 要求量의 結果分析에 따라 決定된다고 할 수 있다.

즉, “要求率이 減少할 때는 利用可能性(availability)은 增加하지만 貸出은 減少하며, 이와 反對로 要求率이 增加하면 貸出도 增加하지만 利用可能性은 急速도로 떨어져 결국 失望한 讀者數가 增加함에 따라 貸出頻度も 增加”⁽⁵³⁾ 하게 되는, 소위 貸出頻도와 利用可能性 사이에는 反比例 關係가 存在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利用度가 높은 資料에 限하여 複本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던 利用頻도가 높은 資料의 경우 複本은 몇卷 程度 갖추는 것이 合理的인 것인가. 이에 대하여 指定圖書館와 一般圖書館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指定圖書館는 ① 科目當 受講學生數, ② 賦課된 課題量, ③ 課題提出期間, ④ 課題種類, ⑤ 한時間當 平均 讀書量, ⑥ 貸出期間 등 諸要素間의 相互作

(49) *Ibid.*, p.95.

(50) *Ibid.*, p.72; p.110;
펠턴드, *op. cit.*, p.87.

(51) *CLIP Notes*, p.12; p.104.

(52) *Ibid.*, p.92.

(53) F. F. Leimkuhler, "Systems Analysis in University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27, no.1 (January 1966), p.14.

用에 의하여 決定된다⁽⁵⁴⁾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要素들을 감안한 複本量의 適正範圍를 살펴 보면 랜드스버그(W.R. Landsberg)⁽⁵⁵⁾와 브래든(I.A. Braden)⁽⁵⁶⁾의 實態調査와 로저스(R.D. Rogers)와 웨버(D.C. Weber),⁽⁵⁷⁾ 라일,⁽⁵⁸⁾ 및 日本文部省⁽⁵⁹⁾이 제시한 基準들을 綜合하여 볼 때 대체로 受講 學生 8~10名當 1冊 程度가 적합하지 않을까 여겨지며, 50名을 넘을 경우는 그 複本量을 基準値보다 낮추는 것이 妥當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다음으로 一般圖書의 경우는 複本을 갖추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貸出統計를 根據로 하여 볼 때 계속적인 높은 利用率을 보여 준다든지 教授의 特別한 要求가 있을 경우 藏書構成 擔當司書의 判斷에 의하여 必要量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⁶⁰⁾ 利用頻度에 의하여 算出할 경우에는 筆者가 한 論文에서 밝힌 바 있는 95.45%, 혹은 99.73%의 滿足을 가져올 수 있는 複本量 算出公式⁽⁶¹⁾인,

$$\left(\frac{\text{1권에 대한 예약 회수}}{\text{이용 관찰 기간}} \times \text{관찰기간동안의 평균대출기간} \right) + \left(2(\text{혹은 } 3) \right) \\ \times \frac{\text{관찰기간동안의 이용 회수에 대한 표준편차}}{\text{관찰기간동안의 이용회수}} \times \text{예약자수}$$

에 의하여 算出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4) 資料費 豫算配定

資料費 豫算配定은 資料形態別 配定과 學科別 配定으로 나누어 생각하여

(54) 이들 要素는 Landsberg, Rogers와 Weber 및 Helm의 견해를 종합한 것일.

William R. Landsberg, "Current Trends in the College Reserve Room,"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11, no.2 (April 1950), pp.122~123.

R.D. Rogers and D.C. Weber, *University Library Administration*(New York: Wilson, 1971), p.217.

Margie M. Helm, "Duplicate Copies of Collateral References for College Libraries," *Library Quarterly*, vol.4, no.3(1934), pp.420~435(澤本孝久, 리저브-부깅-시스템과 指定圖書制度,"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o.8 (1970), p.162에서 재인용).

(55) Landsberg, *loc. cit.*

(56) Irene A. Braden, *The Undergraduate Library*(Chicago: ALA, 1970), pp.5~134의 各大學 'reserve collection' 參照.

(57) Rogers and Weber, *op. cit.*, p.216.

(58) Lyle, *op. cit.*, p.82.

(59) 澤本孝久, *op. cit.*, p.172.

(60) *CLIP Notes*, p.95; p.113.

(61) 이에 대한 具體적인 說明은 崔達鉉, 孫正彪, "圖書利用頻度 分析에 의한 學生利用圖書量測定에 관한 研究," *文理學叢*(慶北大學校 文理科大學), 第3卷(1975), pp.81~84 參照.

볼 수 있다.

資料形態別 配定은 그 圖書館의 資料購入豫算이 어느 程度의 集書水準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냐에 따라 많은 影響을 받기 때문에 自己 圖書館의 集書水準(集書強度)과 選擇 優先順位를 충분히 고려하여 資料形態別로 配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대체로 ‘資料選擇의 範圍와 優先順位’에서 급及한 바 있는 3~4段階 水準의 경우에는 “圖書費：定期刊行物費：其他 資料費를 50%：20~40%：10~30%程度”⁽⁶²⁾는 유지하는 것이 普遍的인 傾向이라 하겠으며,⁽⁶³⁾ 그 以上の 水準에는 圖書費 쪽에 加重值를 더하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學科別 圖書費配定(定期刊行物費는 除外)을 살펴 보면, 圖書館 圖書費와 專門圖書를 위한 學科圖書費는 6~7：3~4로 하되, 그 配定方法은 諸學者들의 見解를 綜合하여 본 結果 教科課程(教科科目數), 奉仕對象者數(學部 및 大學院生數, 教授數), 利用度(主題別 利用冊數), 主題別 平均定價의 4基本要素를 충분히 고려하여 配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⁶⁴⁾ 이러한 4基本要素를 바탕으로 하여 筆者가 한 論文에서 제시한 바 있는 學科別 圖書費 豫算配定公式을 參考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⁶⁵⁾

$$AD = \frac{T}{4} \left(\frac{M_{Di}}{\sum_{i=1}^n M_{Di}} + \frac{C_{Si}}{\sum_{i=1}^n C_{Si}} + \frac{(1.5U_{Di} + 4G_{Di} + 6F_{Di})}{\left(1.5\sum_{i=1}^n U_{Di} + 4\sum_{i=1}^n G_{Di} + 6\sum_{i=1}^n F_{Di}\right)} + \frac{AC_{Si}}{\sum_{i=1}^n AC_{Si}} \right)$$

AD = 學科別 圖書費, T = 學科別 配定總額,

M_{Di} = 'i' 學科名과 일치하는 理論專攻科目數, C_{Si} = 'i' 學科名과 일치하는

主題別貸出量, U_{Di} = 'i' 學科의 學部學生數, G_{Di} = 'i' 學科의 大學院生數,

F_{Di} = 'i' 學科의 教授數, AC_{Si} = 'i' 學科名과 일치하는 主題의 平均定價,

(62) Katz, *op. cit.*, p.66.

(63) 美國의 1982~83年度 103個 綜合大學의 實態를 보면 中間二層의 경우 逐次刊行物費가 차지하는 比率은 全資料費의 54%로 나타나고 있다. (ARL Statistics, 1982~83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1984), p.22.

(64) 基本要素에 대한 諸學者들의 見解와 이들 要素間의 相關關係에 대하여는 孫正彪, “大學圖書館의 學科別 圖書費 豫算配定公式 모던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會誌(延世大學校 圖書館學會), 第4號(1979), pp.194~197; pp.207~209.

(65) *Ibid.*, p.213.

$$\sum_{i=1}^n = i=1 \dots \dots n \text{까지의 합}$$

이 밖에 新設 學科의 경우에는 上記한 學科別 配定과는 별도로 均衡있는 藏書構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段階 水準의 集書가 될 때까지 特別 配慮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Ⅲ. 分析 및 考察

1. 藏書開發政策의 成文化 現況

成文化된 資料選定에 관련된 規定이나 選定基準, 혹은 原則, 蒐集方針 등 藏書開發政策에 관한 聲明書의 有·無에 대한 現況을 살펴 보면 <表 1>과 같이 圖書館運營規程에 明文化 한 大學이 13個大學, 別度の 選定基準을 가지고 있는 大學이 7個 大學으로, ‘있는 大學’이 20個 大學, ‘없는 大學’이 20個 大學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1. 成文化된 藏書開發政策 有·無

항 목	대 학 수	있는 경우	대 학 수
있 다	20개 大	도서관 규정 內	13개 大
없 다	20	별도 선정기준	7
계	40	계	20

이 중 成文化된 것이 있는 大學의 경우 그 內容構成을 分析하여 본 結果, 規程에 明示한 大學은 모두 奉仕對象者別 選定對象圖書의 種類단을 간단히 明示하고, 그 外的 基本要素들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指針書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別度로 基準(혹은 原則)을 마련하고 있는 大學도 藏書開發政策의 諸構成要素中 ‘選擇責任所在’ 단 밝힌 大學이 1個, ‘集書範圍와 形態別 制限範圍’ 단 밝힌 大學이 1個, ‘選擇責任·集書範圍·複本’ 明示가 1個, ‘規程에 選擇責任 明示, 별도의 指針書에 集書範圍·時

代的 制限範圍·複本 明示'가 1個, '圖書構成比·集書範圍·選擇道具·優先 順位·資料費 配定原則·複本' 明示가 1個 大學으로 나타나 2個 大學을 除外 하고는 극히 制限된 內容만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成文化된 政策이 없거나 規程에만 明示하고 있는 33個 大學의 경우 資料選定方針 設定 關係를 보면 <表 2>와 같이 대부분의 大學들이 '館 長과 收書擔當職員의 協議'나 '慣例', '圖書館委員會의 每年 方針決定'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2. 指針書가 없는 大學의 選定方針

항 목	대학수	항 목	대학수
도서관위원회 방침	6개 대	과거의 관례	6개 대
자료선정위원회 방침	5	도서관위원회, 관장과 수서담 당직원 협의	3
관장과수서담당 직원협의	9	관장과 수서담당직원 협의, 과거의 관례	4
		계	33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過半數의 大學들은 成文化된 政策을 갖추지 않고 慣例나 小數의 收書擔當職員에 의한 非組織的인 集書를 행하고 있는 가 하면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2個大學을 除外하고는 극히 制限된 內容만을 밝히고 있어 보다 組織的, 體系的인 藏書開發을 위하여는 前述한 바 있는 藏書開發政策의 必要性을 再認識하여 보다 具體的이고 體系的인 政策 聲明書의 마련이 절실히 要望된다 하겠다.

2. 資料選擇의 責任과 機構

(1) 選擇機構

資料選擇에 관련된 機構로는 圖書館委員會와 藏書開發委員會(혹은 資料選定委員會)를 들 수 있다. 前者의 資料選擇에 관련된 機能으로는 資料費 豫算 配定·收書方針 및 節次·研究集書에 관한 事項의 審議를 들 수 있으며,⁽⁶⁶⁾

(66) Edmund V. Corbett, *Fundamentals of Library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78), p.56.

後者の 경우는 이미 前述한바와 같이 資料選擇에 관한 直接的 및 間接的 業務 全部를 遂行한다 하겠다. 이들의 實態와 改善方向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圖書館委員會

調査對象 40個 大學中 委員會가 있는 大學이 35個 大學, 없는 大學이 5個 大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있는 大學의 경우 資料選擇에 관련된 機能을 보던 <表 3>과 같이 '資料費 豫算配定 審議'가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23個大)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委員會가 結成되어 있지 않거나(5個大) 있다 하더라도 機能이 明示되어 있지 않은 大學(7個)도 相當數를 차지

表 3. 圖書館委員會의 資料選定關係 機能類型

항 목	대 학 수	항 목	대 학 수
자료비 예산 배정심의	23개大	자료선정 참여	5개大
수서 방질 심의	5	없 다	7

하고 있으나, 行政當局者에게 圖書館의 目標와 藏書開發의 基本方向을 認識시키고 要求豫算編成의 妥當性과 豫算計劃樹立의 合理性을 弘報하기 위하여는 圖書館委員會의 結成 내지 資料選擇에 관련된 機能의 明文化가 바람직하다 하겠다.

나. 藏書開發委員會(資料選定委員會)

委員會 構成은 <表 4>, <表 5>와 같이 委員會가 있는 大學이 12個 大學,

表 4. 資料選定委員會의 構成

항 목	대 학 수	위 원 수
교 수 단	3개大	9명 1개, 6명 1, 학과장 전원 1
사 서 단	4	5명 1, 6명 2, 8명 1
교수와 사서	5	7명 1, 9명 1, 10명 1, 29명 1, 52명 1
위원회 없음	28	
계	40	

表 5. 教授의 경우 構成方法

항	목	대	학	수
	단과대학 대표로만 구성		5개	대
	학과별로 선정위원을 둘		2	
	각 학과장 전담		1	
	계		8	

없는 大學이 23個 大學으로 나타나고 있고, 있는 경우 教授단으로 構成된 大學이 3個 大學, 司書단의 경우가 4個 大學, 教授와 司書 混成이 5個 大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教授가 參與하고 있는 8個 大學中 單科大學 代表만으로 構成된 곳이 5個 大學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委員會의 機能을 보면 <表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委員會가 있는 12個 大學中 ‘資料選擇에 直接參與’ 하는 大學이 5個 大學, ‘購入希望 圖書目錄을 檢討 購入量 調整’이 6個 大學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表 6. 資料選定委員會의 機能

항	목	대학수	항	목	대학수
자료선정	기본방침과 계획수립	3개대	학과 또는 주제별자료 구입예산	액 조정	3개대
자료선택	직접참여	5	수증 혹은 교환자료검토 및 등	록여부 결정	3
구입희망	도서목록 검토 구입량 조정	6			

으며, 委員의 任期는 <表 7>과 같이 한學期가 1個 大學, 1년이 3個 大學, 2년이 2個 大學, 其他가 6個 大學으로 이 中 委員이 圖書館 各 部署의 責任者로 된 4個 大學은 任期가 在職期間 동안으로 되어 있고 2個 大學은 一定

表 7. 資料選定委員 任期

항	목	대	학	수	항	목	대	학	수
한 학 기		1개	대		재직 기간 동안		4개	대	
1 년		3			없 음		2		
2 년		2			계		12		

한 任期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會議開催頻度を 보면 <表 8>과 같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가 6個 大學으로 가장 많고, '週 1回'가 1個, '月 1回'가 3個 大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年 1~2回'도 1個 大學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8. 資料選定委員會 會議開催頻度

항 목	대 학 수	항 목	대 학 수
주 1 회	1개大	년 1~2회	1개大
월 1 회	3	無 答	1
필요에 따라 수시	6	계	12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委員會 組織이 없는 大學이 全體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理論的 背景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한 두사람에 의한 無理한 選擇業務 遂行으로 말미암아 빚어지기 쉬운 個人的인 偏見이나 藏書 構成의 不均衡을 招來시킬 우려성이 많을 뿐 아니라, 委員會 組織이 있다 하더라도 大部分 單科大學 代表로 構成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學科長이나 特定教授가 選擇하는 方法을 採擇하고 있어 體系的, 繼續的인 藏書 構成業務를 遂行할 時間的 餘裕가 없으므로 말미암아 形式的인 選擇이 된다거나, 아니면 自身の 關心分野의 資料蒐集에 優先을 둠으로서 非體系的인 藏書 構成이 될 우려성이 많다 하겠다. 이밖에 委員會의 機能도 극히 一部分 單 遂行하고 있는 大學들이 過半數 以上을 차지하고 있어 그 活動이 아주 미약한 實情이며, 會議開催頻度は 大部分 1個月 以內, 혹은 隨時로 開催하므로 理想的이라 하겠으나, 委員의 任期는 1年 以內이거나 一定 任期가 없는 大學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大學들의 경우는 計劃的이고 安全性 있는 資料蒐集이 缺如될 우려성이 높다 하겠다. 따라서 小數人에 의한 偏向된 集書의 可能性을 最小化하고 形式的인 資料選定을 排除함과 同時에 組織的이고 體系的인 藏書 構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圖書館의 各部署 別代表로 構成된 委員會를 두되 教授 및 學生과 密接한 協力構造體制를 강

구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함과 더불어, 그 機能을 極大化 할 수 있는 方向으로 組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2) 選擇者

圖書館資料의 選擇은 “圖書館職員, 教授陣, 그리고……學生들도 어느 程度 參與하는 하나의 協同業務이다.”⁽⁶⁷⁾ 그러나 前述한 資料選擇의 責任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그 選擇의 主된 責任은 研究用 및 專門分野 標準資料와 指定圖書의 경우는 教授에게, 그 밖의 資料는 圖書館職員에게 있다 하겠다.

이들에 대한 調查結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資料選擇의 參與程度를 살펴 보면 <表 9>와 같이 收書擔當職員과 教授 및 學生들의 參與度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37~38個大). 그러나 資料選擇의 最終的 責任者인 館長이나 一次的 責任을 져야 할 圖書館 職員의 경우는 過半數의 大學만이 (20~21個大), 그리고 資料選定委員會의 경우는

表 9. 資料選擇의 參與程度

항 목	대 학 수	항 목	대 학 수
관 장	21개大	교 수	38개大
도서관 직원	20	학 생	37
수서담당직원	38	자료선정위원회	7
		도서관위원회	5

12個 大學中 7個 大學만이 直接 參與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收書擔當職員·教授·學生을 參與시키지 않고 있는 大學도 2~3個 大學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均衡있는 藏書開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들 選擇關聯者들의 積極的인 參與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協力體制를 強化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資料部門別 選擇의 主된 責任을 살펴 보면 <表 10>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表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專攻分野 學術圖書의 경우 國內書는 學生(37

(67) 필런드, *op. cit.*, p. 89.

表 10. 資料部門別 選擇 責任者

항 목	정공분야 학술도서		참고도서		정기간행물		문예작 품및교양 도서	비도서 자료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자료선정 위원회	5개대	4	5	4	2	2	4	1
각과 교수	35	39	30	34	30	37	14	21
관 장	10	6	13	13	7	8	11	6
수서담당 직원	30	18	32	32	25	14	36	19
참고사서			34	31				
정기간행물 사서					25	14		
비도서자료담당사서								12
학 생	37	21					38	
기 타			1	1			1	

個大), 教授(35個大), 收書擔當職員(30個大)에 의하여 주로 選擇되고 있고, 外國書는 거의 大部分 教授(39個大)에 의하여 選擇되고 있으나, 學生(21個大)과 收書擔當職員(18個大)에 의한 選擇도 過半數에 이르고 있다. 參考圖書는 教授(30個大와 34個大), 收書擔當職員(各 32個大), 參考圖書(34個大와 31個大)에 의하여 주로 選擇되고 있고, 定期刊行物中 國內刊行物의 경우는 教授(30個大), 收書擔當職員(25個大), 定期刊行物司書(25個大)에 의하여, 外國刊行物의 경우는 거의 大部分 教授(37個大)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收書擔當職員과 定期刊行物司書를 選擇에 參與시키는 大學은 各各 14個 大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文藝作品 및 一般敎養圖書는 大部分 學生(38個大)과 收書擔當職員(36個大)에 의하여 選擇되고 있고, 教授(14個大)의 參與도 상당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非圖書資料는 過半數의 大學들이 教授와 收書擔當職員에게 選擇權限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資料選定委員會에 權限을 부여하고 있는 大學은 모든 資料部門에 걸쳐 總 12個 大學中 5個 大學 以下로 나타나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教授는 文藝作品 및 一般敎養圖書를 除外한 全分野에, 學生은 國內外 學術圖書와 文藝作品 및 一般敎養圖書에, 收書擔

當職員은 全分野의 選擇에 參與하고 있으며, 이밖에 參考圖書의 경우는 參考司書의 選擇參與度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定期刊行物은 教授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대체로 資料選擇이 教授와 收書擔當司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責任限界가 不分明한 狀態에 놓여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미 理論的 背景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資料選擇에 대한 주된 責任은 各 部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組織的이고 體系의인 藏書構成을 위하여는 그 限界를 明確히 設定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즉 各 專攻分野의 標準資料와 研究用 資料는 教授가 選擇의 責任을 지도록 하고, 其他 資料는 圖書館에서 責任지되 主題分野 學習用 資料·教科課程의 直接的인 要求와 關係되지 않은 一般專門圖書·文藝作品 및 一般教養圖書는 教授와 學生의 希望 혹은 推薦에 따라 收書擔當司書가, 參考資料, 定期刊行物, 非圖書資料 등은 各 教授의 諮問을 받아 參考司書, 定期刊行物司書, 非圖書資料擔當司書가 一次的인 責任을 지도록 하고, 이들 部署의 代表로 構成된 藏書開發委員會의 最終 選定過程을 거쳐 購入될 資料가 決定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3. 資料選擇의 範圍와 優先順位

資料選擇의 範圍와 優先順位를 보면 <表 11>, <表 12>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資料選擇의 範圍를 보면 <表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非圖書資料는 調查對象 40個 大學中 10個 大學이, 特殊集書는 14個 大學이, 其他資料는 17個 大學이 蒐集對象에서 除外시키고 있는 反面, <表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1個 大學은 平均 2個分野 資料에 대하여 網羅的 蒐集을 하고 있어 比較的 폭 넓은 集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81年 現在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現況을 살펴 보면 大學設置基準令 第12條 3號에 明示된 最低基準인 1人當 30卷에 未達한 大學이 89%⁽⁶⁸⁾이고, 1人當 年次增加

(68) 이 統計는 李炳穆氏가 實地調査한 것을 토대로 하여 分析한 것임(李炳穆, "韓國의 大學圖書館基準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延世大學校 大學院 圖書館學科, 1983), pp.100~104.

表 11. 資料類型別 選擇範圍와 優先順位

자료유형	순위								수집의외	계	
	1	2	3	4	5	6	7	8			
국내 학술도서(학 생용 포함)	16개 대	13	5	2					4	40	
외국 학술도서	14	17	2	3	1				3	40	
국내간행 문예작 품 및 교양도서	2		3	6	22	2	1		4	40	
참고도서	3	3	11	16	4				3	40	
영기간행물	4	5	13	12	3				3	40	
비도서자료				1	1	15	10		3	10	40
특수집서			1		3	10	9		3	14	40
기타자료						3	1	16	3	17	40

表 12. 網羅의 蒐集分野

대학수 : 11개 대학

항 목	대학수	항 목	대학수
국학자료	6개대	자기대학 출판물 및 그 대학에 관한 기록물	2개대
국내 학술도서	4	1950년 이전 발행 국내서 전부	1
국내 교양도서	2	특수교육 관계 자료	1
여성관계자료	2	사회 복지관계 자료	1
미술관계자료	1	천주교 관계 자료	1
불교관계자료	1	계	22

량도 1.4卷 程度⁽⁶⁹⁾로 法的 最低基準인 3卷에 모두 下廻하고 있을 뿐 아니라, 日本, 美國과 比較하여 볼 때 “1人當 年次增加量 比率이 1:1.5:1.6인 데 비하여 資料購入費는 1:3:2.4”⁽⁷⁰⁾로 현격한 差를 들어내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다면 大部分의 大學들이 學部 및 大學院生 學習支援水準 程度에 머물고 있는 實情이므로 먼저 資料蒐集의 優先順位를 고려한 最小範圍를 設定한 後 豫算이 許用할 경우 그 範圍를 점차 擴大하여 나가도록 計劃을 樹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資料選擇의 優先順位를 보면 <表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順位

(69) *Ibid.*, p.109.

(70) 孫正彪, “藏書開發과 收書問題,” 圖協會報, vol.23, no.5 (1982. 9~10), p.7.

로는 國內學術圖書(學生用 包含)(16個大)와 外國學術圖書(14個大)를, 2順位 역시 外國學術圖書(17個大)와 國內學術圖書(13個大)를, 3順位로는 定期刊行物(13個大)과 參考圖書(11個大)를, 4順位 역시 參考圖書(16個大)와 定期刊行物(12個大)을, 5順位로는 國內刊行 文藝作品 및 教養圖書(22個大)를, 6順位로는 非圖書資料(15個大)와 特殊集書(10個大)를, 7順位 역시 非圖書資料(10個大)와 特殊集書(9個大)를, 8順位로는 其他資料(16個大)를 들고 있는 大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다시 選定者別로 살펴 본 結果 <表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教授推薦資料를 1順位로 하는 大學이 가장 많고(26個大), 2順位가 學生希望資料(21個大), 3順位가 圖書館側 選定資料(33個大)로 나타나고 있다.

表 13. 選定者別 優先順位

선정자별 \ 순 위	1	2	3	계
학생희망자료	13개대	21	6	40
교수추천자료	26	13	1	40
도서관추천정자료	2	5	33	40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綜合大學圖書館이 採擇하고 있는 資料選擇 優先順位를 보면 理論의 背景에서 제시한 見解들과는 달리 1順位 혹은 2順位에 들어가야 할 參考圖書와 教養圖書를 4·5順位로 하고 있는 大學이 많은가 하면, “豫算이 削減될 때는 먼저 蒐集制限 考慮對象이 되고 있는 外國學術圖書”(71)를 綜合大學이라든 網羅的 蒐集을 하여야 할 國內學術圖書보다 優先順位로 하고 있는 大學이 많을 뿐 아니라, 選定者別 順位の 경우도 <表 10>과 관련시켜 보았을 때 研究에 관련된 外國學術資料와 國內 專門資料의 選擇에 주된 關心을 보여 주는 教授들의 推薦資料를 1順位로 하고 있는 大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理論의 背景에서 제시한 바 있는 段階에 맞추어 그 優先順位를 設定하여 體系的이고 均衡있는 藏

(71) Magrill and East, *op.cit.*, p.20.

30 도서관학논집

書開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國內學術圖書와 教養圖書는 網羅的 蒐集이 될 수 있도록 集書計劃을 再定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4. 特殊集書

特殊集書 有·無에 대한 實態를 보면 調查對象 40個 大學中 28個 大學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갖추고 있는 大學들의 資料購入 措置에 대한 實態를 살펴 보면 <表 14>, <表 15>와 같이 資料購入은 '配定된 資料費 豫算範圍內에서 購入' 한다는 大

表 14. 特殊集書用 資料購入 豫算出處

항	목	대 학 수
배정된 자료비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		26개대
특별예산을 별도로 영달받아 구입		2
계		28

表 15. 特殊集書用 資料購入 決定者

항	목	대 학 수	항	목	대 학 수
관 장		17개대	관련학과의 자문을 얻어서		12개대
도서관위원회		4	독수집서 담당사서		2
자료선정위원회		6			

學이 總 28個 大學中 26個 大學으로 나타나고 있고, 資料購入에 대한 決定은 '館長이 한다'는 大學이 17個 大學으로 가장 많고, '關聯學科의 諮問을 얻어서' 決定하는 경우(12個大)가 그 다음 順位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特殊集書란 理論的 背景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一般的으로 5段階 水準 以上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大學圖書館들의 資料購入費 現況을 볼때 學生 1人當 年次增加量이 1.4卷으로 法的基準인 3卷의 半밖에 안되는 水準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다면 特別豫算을 別廢로 令達받아 購入措置하는 것이 現實的인 方法이라 하겠으며, 資料購入 決定도 資料의 性

格을 고려하여 館長 單獨보다는 關聯學科의 諮問을 얻어 特殊集書 擔當司書나 特定分野의 경우는 教授가 一次的 責任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5. 複 本

各 大學圖書館이 採擇하고 있는 複本數 決定方法을 보면 <表 16>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表 16 複本數 決定方法

자료유형	항 목	대출빈도 에 따라	학생 수에 비례	내출빈도(혹은 학생수) 관계없이 일정부수	1종1권으로 제한	기타	무답	계
교수요청도서및 지정도서		18개 대	6	15	1			40
국내 학술도서		13	5	22				40
교과서		8	6	25	1			40
국내간행 문예작품 및 교양도서		16		18	6			40
베스트셀러물		16		17	6		1	40
교직원저작물				33	2	5		40
외국학술도서		2		6	31	1		40

<表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教授要請圖書 및 指定圖書, 國內刊行 文藝作品 및 教養圖書, 베스트 셀러물은 '貸出頻도에 따라' 갖추는 大學과 '貸出頻度(혹은 學生數)에 關係없이 一定部數'를 갖추는 大學이 가장 많고, 國內學術圖書와 教科書 및 教職員 著作物은 '貸出頻度(혹은 學生數)에 關係없이 一定部數'를 갖추는 大學이, 外國學術圖書는 '1種 1卷으로 制限'하는 大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밖에 教職員 著作物의 경우 其他에 應答한 5個 大學을 보면 寄贈에 의하여 擴保하거나 規定에 없다고 하고 있어 대체로 非合理的, 非經濟的인 方法을 採擇하고 있는 大學들이 많은 實情이라 하겠다. 따라서 經濟的인 藏書構成을 위하여는 教授要請圖書 및 指定圖書는 課題讀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學生數에 比例하여 갖추고, 國內學術圖書·國內文藝作品 및 教養圖書·베스트 셀러物은 1種 1卷을 基本으로

하되 貸出頻度에 따라, 敎職員 著作物은 敎科課程에 적합한 資料에 限하여 1種 1卷을 基本으로 하되 貸出頻度에 따라, 外國學術圖書는 1種 1卷을 原則으로 하며, 敎科書의 경우는 補充資料로 절대 필요시 되거나 모두 購入하기로 한 圖書館政策이 아닌 以上 蒐集對象에서 除外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6. 資料購入費 配定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資料購入費 配定을 보면 圖書館과 學科로 나누어 配定하고 있는 大學이 35個 大學, 그렇지 않은 大學이 5個 大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中 學科別 資料購入費를 配定하고 있는 大學들의 實態를 좀 더 具體的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配定方法을 보면 <表-17>과 같이 9가지 類型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中 가장 많이 採擇하고 있는 方法은 學科單位別 均等配定方法(15個大)으로 나타나고 있고, '學科別 資料購入費 속에 定期刊物費 包含 與否'는 <表 18>과 같이 大部分 包含하지 않고 있으나(28個大), 包含하고 있는 大學도 7個 大學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17. 學科別 資料購入費 配定方法

항	목	대학수	항	목	대학수
교수개인별 배정		6개대	교수개인별+학생 1인당배정		4대
학과단위 균등 배정		15	학과단위균등+교수개인별+학생인 1당배정		3
학생 1인당 배정		2	학생 1인당+교과목수별배정		1
교과목수별 배정		.	학과단위균등+교수개인별+교과목수별배정		1
학과단위균등+교수개인별배정		2			
학과단위균등+학생 1인당배정		1	계		35

表 18. 學科別 資料購入費內 定期刊物費 包含與否

대학수	항목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계
	대학수		7개대	
대학수				35

다음으로 資料購入費 配定比率을 보면, 圖書館과 學科의 配當比率은 <表 19>와 같이 14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는바, 그中 圖書館:學科別 資料購入費를 10~30%:70~90%로 配定하고 있는 大學이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고, 其他에 應答한 2個 大學은 거의 大部分을 教授 個人別로 配定하고 있으며, 資料別 割當比率은 <表 20>과 같이 18가지 類型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表 19. 圖書館과 學科 資料購入費 配當比率

항 목		대 학 수	항 목		대 학 수
도 서 관	학 과		도 서 관	학 과	
10%	90%	3개대	53%	47%	1개대
20	80	4	60	40	2
27	73	1	64	36	1
30	70	8	66	34	1
40	60	3	75	25	1
41	59	1	77	23	1
45	55	1	기	타	2
50	50	2	두	달	3
				계	35

表 20. 資料別 割當比率

항 목			대 학 수	항 목			대 학 수
도 서 비	정기 구입비	기 타		도 서 비	정기 구입비	기 타	
30%	60%	10%	1개대	60%	40%	·	5개대
40	60	·	1	62	38	·	2
45	50	5	1	65	25	10	2
47.2	47.3	4.5	1	65	35	·	3
50	40	10	3	67	33	·	2
50	50	·	2	70	30	·	3
55	40	5	1	70	20	10	1
58	38	4	1	84	16	·	2
60	35	5	2	무	답		5
60	30	10	2	계			40

34 도서관학논집

그 중 8個 大學은 圖書費와 定期刊行物費만 配定하고 있다. 이들의 割當比率을 보면 圖書費:定期刊行物費를 60%:40%로 하는 大學이 5個 大學으로 가장 많으며, 圖書費를 60% 以上 配定하고 있는 大學이 總 35個 大學中 24個 大學으로 나타나고 있고, 中 70% 以上 配定이 6個 大學으로 나타나 圖書爲主의 集書傾向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國內書와 外國書의 圖書費 割當比率은 <表 21>과 같이 9가지 類型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그 中 國內

表 21. 國內書와 外國書 圖書費比率

항 목		대 학 수	항 목		대 학 수
국 내 서	외 국 서		국 내 서	외 국 서	
20%	80%	2개대	50%	50%	8개대
25	75	3	60	40	5
30	70	6	70	30	2
35	65	1	부	답	6
40	60	6			
45	55	1	계		40

書 割當比率을 40% 未滿으로 하고 있는 大學이 總 34個 大學中 18個 大學으로 나타나 外國書에 많은 比重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新設學科에 대한 特別支援 與否는 <表 22>와 같이, 特別支援을 하는 大學이 25個

表 22. 新設學科 特別支援與否

항 목	대 학 수
특별지원을 한다	25개대
기존학과와 동등하게 한다	13
무 답	2
계	40

大學, 하지 않는 大學이 13個 大學으로 나타나고 있고, 自由記述型으로 된 '特別支援方法'에 대한 應答內容을 分析하여 본 結果 <表 23>과 같이 特別支援을 위한 明白한 基準이 設定된 大學이 25個 大學中 11個 大學, 設定되

表 23. 特別支援方法

응답내용 요약	대학수	응답내용 요약	대학수
학과당 배정액에 100% 추가 지원	6개대	특별도서비(혹은 기본도서비)배정	3개대
학과당 배정액에 50% 추가 지원	2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7
학과당 배정액에 30% 추가 지원	1	학과로부터 도서목록을 받아 배당된 예산초과 하더라도 적극지원	4
학과당 50만원 추가 배정	2		
		계	25

어 있지 않은 大學이 14個 大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基準이 設定된 大學中에는 ‘學科當 配定額에 100% 追加’가 6個 大學으로 가장 많고, 未設定 大學中에는 ‘豫算範圍 內에서 追加支援’한다는 比較的 消極的인 政策을 樹立하고 있는 大學이 7個 大學으로 가장 많으며, 支援期間까지 設定한 大學은 2個 大學으로 나타나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資料購入費 配定을 보면 大配分 圖書館과 學科로 나누어져 있으나 그렇지 않은 5個 大學의 경우는 積極的인 奉仕對象者들의 정치적 好경에 따른 藏書構成의 不均衡이 招來될 우려성이 많다 하겠으며,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大部分 個個 學科의 教科課程의 特性和 主題別 利用度나 價格을 고려하지 않고 學科單位別이나 教授 個人別, 學生 1人當 등으로 均等配分하고 있는 大學이 거의 大部分일 뿐 아니라, 學科別 配定額에 定期刊物費를 包含시키고 있는 7個 大學의 경우는 學科에 따라서는 圖書 優先順位보다 定期刊物 優先順位로 集書(理工系 學科들의 경우) 함으로써 藏書構成에 不均衡이 초래될 우려성을 자아내고 있다 하겠다. 또한 資料費 配當比率도 過半數 以上の 大學이 學科에 더 많이 配定하고 있어 <表 11>과 관련시켜 보았을 때 學習用 보다 研究用 集書에 置重하려는 傾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겠으며, 資料類型別 割當比率도 大配分の 大學이 圖書爲主의 集書傾向을 보여 주고 있는가 하면, 過半數 以上の 大學들이 外國書에 더 많은 比重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新設學科도 既存學科와 同等하게 豫算配定을 하고 있는 大學도 相當數인가 하면, 特別支援을 하고 있는

大學들도 過半數 以上이 具體的인 基準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資料費 豫算 配定에 問題點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段階別 水準에 따른 體系의이고 均衡있는 藏書開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資料費 豫算을 圖書館과 學科로 區分하여 配定하되, 이미 資料選擇의 責任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教授가 주된 責任을 지녀야 할 研究用 및 專門分野 標準資料와 指定圖書를 除外하고는 司書에게 주된 責任이 있음을 감안하여 圖書館과 學科의 配定比率를 60~70% : 30~40% 程度로 하고, 學科別 配定方法은 均等配定이 아니라 理論的 背景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各學科의 奉仕對象者數와 構成成分, 敎科課程의 特性, 主題別 利用度, 主題別 平均定價의 4基本要素를 충분히 고려하여 各學科의 特性에 맞게 配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리고 資料類型別 割當比率는 自己 圖書館의 集書水準과 選擇優先順位를 충분히 고려하여 配定하되 學科資料購入費에 定期刊行物費를 包含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3~4段階 水準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實情을 고려하여 볼 때 대체로 圖書費 : 定期刊行物費 : 其他 資料費를 50% : 40% : 10%로 하는데, 혹은 圖書와 定期刊行物 爲主로만 할 경우에는 50~60% : 40~50%로 하는 것이 現實的이지 않을까 思料된다. 그러나 그 以下의 水準에서는 圖書費 쪽에 加重值를 부과하도록 하고, 外國書보다 國內書에 配定の 優先順位를 두되 參考資料와 敎養圖書 및 學習用 圖書購入에 一次的인 配定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밖에 新設學科의 경우에는 既存學科와 同等水準이 될 때까지 特別支援을 하도록 具體的인 基準을 明文化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Ⅳ. 結 論

지금까지 42個 綜合大學中 質問紙가 回收된 40個校를 對象으로 그들이 採擇하고 있는 藏書開發政策의 實態를 調査·分析하여 안고 있는 問題點들을 摘出하고 藏書開發政策에 관한 理論을 바탕으로 그 改善方向을 提示하여 보

았다.

이미 序論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오늘날 大部分의 大學圖書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問題中의 하나는 高度化 되어 가는 知識領域과 知識總量의 擴大, 要求度의 多樣化 및 人的 能力과 豫算의 制限性이라는 現實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合理的이고 經濟的인 藏書構成을 이룩하여 圖書館資料를 통한 教授와 學習, 研究·調查間에 相互有機的인 關係를 맺어 줄 것인가 하는 問題라 하겠다. 특히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資料購入 豫算의 削減으로 인한 購賣力의 低下는 先進國 大學圖書館들의 藏書開發에 가장 큰 問題로 登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各 圖書館들은 주어진 豫算으로 最善의 藏書를 구축하고자 資料蒐集節次의 公式化, 藏書開發政策의 成文化, 豫算配定の 公式化, 長期計劃의 明確化, 協同프로그램開發, 藏書評價 및 調整에 관한 計量의 方法 模索 등 多角的인 方法을 模索하고 있다. 이러한 方法模索은 비단 先進國 뿐만이 아니라, 大學教育人口의 急速한 量的 膨脹과 더불어는 施設投資費의 急增으로 인하여 많은 豫算不足 現象에 直面하고 있는 우리나라 大學圖書館들의 立場에서는 더욱 絶실히 要請되는 問題라 하겠다.

그러나 40個 綜合大學을 對象으로 하여 36個 問項으로 된 質問紙와 成文化된 資料選定基準이나 關係規定 등을 蒐集하여 그 實態를 調査·分析하여 본 結果 成文化된 資料選定基準이나 關係規定의 內容, 資料選擇의 責任과 機構, 選擇範圍의 優先順位, 特殊集書의 購入決定者와 豫算, 複本數 決定方法, 資料購入費 配定 등, 藏書開發政策 全般에 걸쳐 大部分의 大學들이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問題點을 中心으로 分析 및 考察에서 提示해 놓은 改善方案을 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大部分의 大學들은 慣例나 小數의 收書擔當職員에 의하여 非組織的인 集書를 행하고 있으나 組織的, 體系的인 藏書開發을 위하여는 成文化된 具體的인 政策聲明書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2. 行政當局者에게 圖書館의 目標과 藏書開發의 基本方向을 인식시키고 要求豫算編成의 妥當성과 合理性을 弘報하기 위하여는 圖書館委員會의 結成

내지 資料選擇에 관련된 機能을 明文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3. 小數人에 의한 偏向된 集書의 可能性을 最小化하고 形式的인 資料選定을 排除하기 위하여는 圖書館의 各 部署別 代表로 構成된 藏書開發委員會를 두되 教授 및 學生과 밀접한 協力構造體制를 강구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함과 더불어 그 機能을 極大化 할 수 있는 方向으로 組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4. 各 專攻分野의 標準資料와 研究用 資料의 選擇責任은 教授가, 學習用 資料·一般專門圖書·文藝作品·教養圖書는 收書擔當司書가, 參考資料, 定期刊行物, 非圖書資料 등은 教授의 諮問을 받아 各 擔當司書가 一次的인 責任을 지도록 하고, 이들 部署의 代表로 構成된 藏書開發委員會의 最終 選定過程을 거쳐 購入될 資料가 決定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5. 資料選擇의 範圍는 먼저 資料蒐集의 優先順位를 고려한 最小範圍를 設定한 後 豫算이 許用할 경우 그 範圍를 점차 擴大하여 나가도록 計劃을 樹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6. 資料選擇의 優先順位는 理論的 背景에서 제시한 集書段階에 맞추어 그 順位를 設定하고, 外國書보다 國內書를 優先順位로 하되, 國內學術圖書와 教養圖書는 網羅的蒐集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7. 特殊集書는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學生 1人當 平均 年次增加量이 1.4 卷 밖에 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볼 때 特別豫算을 令達받아 購入措置하는 것이 現實的이라 하겠으며, 資料購入 決定도 館長 單獨보다는 關聯學科의 諮問을 얻어 特殊集書 擔當司書나 特殊分野의 경우는 教授가 一次的 責任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8. 複本은 教授要請圖書와 指定圖書의 경우는 學生數에 比例하여 갖추고, 그 밖의 國內書는 1種 1卷을 基本으로 하되 貸出頻度에 따라, 外國學術圖書는 1種 1卷을 原則으로 하고, 教科書의 경우는 補充資料로 필요시 되거나 全部 購入하기로 한 方針設定이 아닌 以上 蒐集對象에서 除外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9. 資料購入費 配定은 圖書館과 學科로 나누어 配定하되, 그 配定比率은 60~70% : 30~40% 程度로 하고, 學科別 配定方法은 各 學科의 奉仕對象者數와 構成成分, 教科課程의 特性, 主題別 利用度, 主題別 平均定價를 고려하여 各 學科의 特性에 맞게 配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리고 資料類型別 割當比率은 自己 圖書館의 集書水準과 選擇優先順位를 고려하여 配定하되, 우리나라 實情을 고려하여 볼 때 3~4段階 水準의 경우에는 대체로 圖書費 : 定期刊行物費 : 其他 資料費를 50% : 40% : 10%로 하든지 혹은 圖書와 定期刊行物 爲主로만 할 경우에는 50~60% : 40~50%로 하는 것이 現實的이라 하겠으며, 그 以下의 水準에서는 圖書費 쪽에 加重值를 부과하도록 하고, 外國書보다 國內書에 配定의 優先順位를 두되, 參考資料와 教養圖書 및 學習用 圖書購入에 一次的인 配定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 밖에 新設學科의 경우에는 既存學科와 同等水準이 될 때까지 特別支援을 하도록 具體的인 基準을 明文化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參 考 文 獻

脚註로 代身함.

A Study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of the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Sohn, Jung Pyo*

〈Abstract〉

This study is a survey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in the 40 university libraries among 42 in Korea as of 1984.

The survey used a questionnaire with 36 questions concerning the basic elements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The survey results revealed many problems demanding correction.

The measures to correct the problems in the university libraries are as follows.

1. It is desirable that the libraries should have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tatement written and adopted for the systematic collection building.

2. It is advisable that the libraries should include a function of the materials selection among other various functions of the Library Committee for the purpose of informing administrators of the goals of the libraries and the validity of the budgetary allocation.

3. It is desirable that each library should organize the Collection Development Committee for minimizing the possibility of personal bias on the part of the individual selectors.

4. It is advisable that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materials

* Dept. of Library Science, College of Social Sciences, Kyungpook National Univ.

selection should be delegated as follows: for the materials for faculty research, to the faculty members; for the other collections, to the professional staff of each department; for the final review of whether or not to purchase, to the Collection Development Committee.

5. It is desirable for the purchase priority of materials to be set up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6 levels of collection development.

6. It is advisable that the libraries should, as top priority, purchase materials in direct support of the undergraduate and graduate academic programs, and in subject matter areas other than languages and literature, Korean materials should have not only the higher priority than the foreign language materials, but also maintain the comprehensive collection level.

7. It is desirable that the special collections should be purchased by special funds from the authority, and the special collections librarian should have the responsibility of the materials selection under the advice of the faculty members relating to the subject area.

8. It is advisable that duplicate copies should be bought only for high use items, but for reserve books, by the program enrollment, and textbooks should not be bought in general, except as supplemental materials for course work in which they are necessary and heavily used.

9. It is reasonable that the material budget should be distributed as follows: by the ratio for distributing funds, about 60~70% for the library and 30~40% for departments; by the type of materials, about 50% for books, 40% for periodicals and 10% for other materials, or when not bought other materials, about 50~60% for books and 40~50% for periodical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hat undergraduate

class enrollment, graduate class enrollment, undergraduate majors, graduate majors, average book cost in the discipline, number of faculty, and use rate by subjec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factors for the allocation of funds by department, and specia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newly-founded departments so the library holdings can be adequate to support them.